

# 4차 국가철도망 30조 삭감 ‘용문~홍천’ 비상등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90조~100조원대로 낮출것 요구  
수도권 대규모 사업에 밀려 강원도 최대 피해자 우려

용문~홍천 철도를 비롯한 주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는 강원도의 노력이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노선 중 최대 30조원 상당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60조원 규모의 노선을 선정, 기재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사업비 역시 60조원으로 총액은 120조원가량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규사업을 대폭 줄여 총 사업비를 90조~100조원대

로 맞출 것을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경우 사실상 고정값이다 보니 사업비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신규사업에서 절반에 달하는 최대 30조원 가까이를 삭감해야 한다.

특히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 당시 신규사업비 44조3,00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 사업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신규사업이 32개였는데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을 고려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은 대폭 제외될 수 있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수도권 최대 관심사업인 GTX-D(김포~하남)의 총 사업비가 6조원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사업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국토부는 예산 관련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당초 을 초 발표 예정이었던 국가철도망

계획의 초안 공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총 사업비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의 1순위 사업인 용문~홍천 철도의 사업비는 8,000억원가량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반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기영 원선영기자

2면에 계속

## 속초 시내 구간만 빼고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전 공구 발주 내달 완료

속초=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가 다음 달 중 속초 시내 구간을 제외한 전 공구의 발주(본보 지난 19일자 18면 보도)를 완료한다. 결국 동서고속철도 지하화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속초 구간의 발주 시기가 조기 개통의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주 9개 공구 중 강릉 구간인 1, 2공구와 4공구(양양), 9공구(제진) 등 4개 공구에 대한 설계·시공 일괄(턴키) 입찰 공고로 했으며, 다음 달에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3·5·7·8공구의 기본·실시설계를 공고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는 6공구를 제외한 8개 공구의 사업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달 발주 대상에서 제외된 6공구는 속초시 대포동~조양동 시내 구간으로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이 속초역을 기점으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공단은 동서고속철도 지하화 여부 등의 논란이 매듭된 이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1월께 강릉 구간이 우선 착공하더라도 6공구의 발주가 늦어질 경우 2027년 초 개통 시기에 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속초 시내 구간인 6공구의 발주 등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착공과 개통 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 4차 국가철도망 30조 삭감 ‘용문~홍천 철도’ 비상등 -1면에서 계속

이로 인해 국토부와 강원도 등은 노선 직선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순위 사업인 원주~춘천 철도는 1조2,000억원대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어렵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용문~홍천을 비롯한 강원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 “강원 종합건설업 경기 회복위한 인프라 절실”

도내 건설사 수주건수 1년 전보다 21% 감소 국가기관 발주 단 1건  
신생 회사 38개 증가... 일감은 감소 업체 간 출혈 경쟁 불가피 우려

강원지역 종합건설업계가 경기 회복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사의 올 1~2월 공공부문 건설공사 누적 수주건수는 총 145건으로 1년 전(184건)보다 21.2%(39건)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지자체의 발주량이 전년(135건)보다 27.4% 감소한 98건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발주량은 단 1건으로 1년 새 7건이 줄었다.

이 같은 수주량 감소는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예산 투입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누적 수주액은 1,458억4,210만여원으로 1년 전

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이 시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전체 수주액 규모는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건설업체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실적신고를 마친 도내 종합건설사는 전년 대비 38개 많은 586개다. 경기 악화로 일감은 줄었지만 업체 간 경쟁은 커지면서 과당 경쟁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에 도회는 지난 22일 ‘용문~홍천 철도 유치 염원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도내에 산적한 인프라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교통 물류망을 확보하고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지난 22일 도회 사무처에서 ‘용문~홍천 철도 유치 염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보다 2.6% 증가했다. 이는 건설자재, 유튜브비용 등 장비·자재의 물가상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회장 홍천철도 유치 응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3일 '유문~홍천 철도 유치 염원 챌린지'에 참여해 정부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용문~홍천 철도건설 촉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사진)은 지난 22일 '용문~홍천 철도 유치 염원 챌린지'에 참여하고 정부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23일 강원도회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용문~홍천 구간 34.2km(추정 사업비 7818억원)의 단선전철 연장사업 유치를 위한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오 회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용문~홍천 철도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필수사업"이라며 "홍천군민을 비롯, 강원도민 모두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동해권 경제권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강릉~삼척 고속화사업(43km·1조2561억원)과 제천~영월간고속도로, 강릉~제진 철도, 제2경춘국도, 춘천~철원 고속도 등도 조속히 추진돼, 낙후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